

# 나주천연염색재단 '공예왕국' 명성 되찾는다

### 1900년대 초 호남 유일...기술 개발 교육 실시 공예제작소 설립 110년 기념 소개전·컨설팅도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 1,900년대 초 호남지역 유일의 공예품제작소가 위치했던 '공예왕국 나주'의 명성 되찾기에 나서고 있다.

20일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에 따르면 나주 공예품의 역사는 약 2,000년 전 고대 마한의 무덤 양식인 고분에서 발견된 대형 옹관, 금동관, 금동신발 등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제일의 '나주부채'는 대영박물관, 도쿄 국립박물관, 프랑스 부채박물관 등에 소장돼있을 정도로 명성이 높았다.

1930년대 일본인 야나기 무네키(柳宗悦)는 전라도 공예를 둘러보고 쓴 '전라기행'(全羅紀行)에서 남국의 공예왕국의 핵심 지역으로 나주를 꼽았다.

나주는 1913년 호남지역에서 유일하게 나주 공예품제작소가 설립돼 공예품 기술 개발과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1939년 4월 16일자 신문에 '나주산기공예품제작소(羅州山岐工藝品製作所)'에서 죽제품을 국내를 넘어 만주와 중국까지 수출했다는 기사 내용이 실려 있다.

나주 공예는 산업화 흐름 속에 접미기를 겪으며 오늘날 나주반, 쪽 염색, 색판나이 등 무형문화재 전통 기술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근 나주가 대표하는 색인 천연염색을 중심으로 나주 공예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나주천연염색문화재단 목공예실에서 공예품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재단은 나주공예품제작소 설립 110년 을 맞아 전라도 공예 부흥을 위한 나주로 컬크래프트(지역공예품) 홍보 및 판매, 지역 공방 작가 소개전 등을 개최하고 있다.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제품

다. 여기에 전남공예창작센터 유치를 통해

목공예, 섬유공예 장비를 갖추고 지난 해 30여회에 걸친 교육·체험프로그램 개최, 작가 창작비, 컨설팅, 전시판매전 등을 지원했다.

올해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사업지원 대상으로 지정돼 교육, 판매 촉진전, 마케팅 교육, 공예인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은 앞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지역 공예인을 강사로 초청, 초·중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예'를 주제로 한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김형식 재단 상임이사는 "재단은 그동안 공예장비 시설 구축, 나주 로컬크래프트 운영, 다양한 공예 프로그램 개발, 공예 간 융합 상품 개발 등을 통해 나주 공예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프라를 잘 활용해 나주 공예의 명성을 되찾고 지역 공예인들의 직업 활동 기회를 제공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이재순 기자

## 곡성, 데이터 기반 행정역량 '전국 최고'

### 실태점검 평가 96.6점...우수기관 선정

곡성군이 데이터에 기반한 행정 역량에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평가됐다.

20일 곡성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1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에서 곡성군이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 현황 전반을 점검함으로써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정착시키고자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지자체의 경우 266개 기관이 평가를 받았으며 이 중 90개 기관이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평가에서 곡성군이 받은 총점은 96.6점이다. 지자체 평균 83.29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다. 그만큼 곡성군의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이 우수기관 중에서도 매우 뛰어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는 ▲데이터 기반 행정 거버넌스 ▲활용 역량 강화 ▲공동 활용 데이터 등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4개 분야 8개 지표에 따라 진행됐다. 특히 데이터 분석 과제 수행과 정책 활용,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 사례 발굴 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중점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곡성군은 특히 데이터 분석·활용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곡성군은 산림수종 분포를 분석해 숲 가꾸기 대상지 선정 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바 있다. 해당 사

례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 영역에서 우수 사례로 채택될 만큼 호평을 받았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 및 적용 사례도 뛰어난 것으로 인정 받았다. 실제로 곡성군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청구 빈도가 높은 정보를 사전정보 목록에 추가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고수요 관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효과적이고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위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한 분 한 분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한정길 기자



완도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배우 위하준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완도군 제공

## 완도, 배우 위하준 홍보대사 위촉

완도군이 배우 위하준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20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군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최소한의 인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배우 위하준은 완도군 소안면 출신으로,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경찰 황준호 역을 맡아 활약을 펼치는 월드스타 반열에 올랐다.

완도군 관계자는 "배우 위하준 씨가 완도군 출신이라는 점과 신인 시절부터 인터뷰와 방송 등을 통해 고향을 언급하며 남다른 애乡심을 보여줘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하준 배우는 "고향인 완도군의 홍보대사로 위촉돼서 기쁘고 뜻 깊다"면서 "앞으로 완도의 매력과 소식을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완도=최규욱 기자

## 나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나주시가 취약계층의 한시적 생계 지원을 위한 공공분야 일자리 확충에 힘쓰고 있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2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2차) 참여 신청을 오는 21일부터 28일까지 접수 받는다.

모집 분야 및 인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청사 방역지원 등 총 33개 사업에 5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근로기준은 세부사업별로 상이하며 3월부터 6월 말까지 주 15~40시간 이내로 시급 9,160원(간식비 별도)을 지급한다. /나주=이재순 기자

## 순천, 맞춤형 HACCP 인증사업 추진

### 농식품가공업체 최대 400만원씩 지원

순천시가 코로나19와 HACCP 인증 의무화 품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식품가공업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HACCP 인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HACCP은 식품의 생산에서 유통·소비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해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증하는 식품안전관리제도로 지난해 12월부터는 관련 품목을 생

산하는 가공업체는 HACCP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만큼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 컨설팅·검사·사무 교육 등 많은 비용이 필요해 소규모 가공업체에서는 HACCP인증에 어려움이 많았다.

순천시는 이러한 여건을 파악·분석해 다른 지자체의 컨설팅 비용만 지원하는

사업과 달리 다양한 절차에서 소요되는 컨설팅비, 품질검사비, 교육비, 인증심사비, 기계 검정비 등 HACCP 인증 농가의 부담 분야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순천시 또는 전남도 내 생산 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하며 연 평균매출 5억 원 미만의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희망업체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8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전남취재본부=박경식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 광양소방서, 화재 안전관리 간담회

광양소방서가 최근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노후 산업단지 입주업체 6개 기관과 '화재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제철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이 참석해 소방서와 유기적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노후산업단지 화재 사례와 겨울철 산업단지 소방안전관리 강화 방안,

위험요인 분석 및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 화재 예방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완주 예방안전과장은 "산업단지 기업협의체와 소방서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수시로 정보를 교환해 대형재난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안전한 광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권동현 기자



### 영암 아리랑로타리클럽, 보행기 기탁

국제 로타리 3610지구 영암 아리랑로타리클럽은 최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삼호읍행정복지센터에 보행기를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암아리랑로타리클럽은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기 위한 여성 봉사단체로서 설립된 이래로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한 나눔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문미옥 회장은 "활동을 도와주는 보행기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더욱 편한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봉사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탁된 보행기는 관내 어르신 30분께 전달할 예정이다.

/영암=최복섭 기자



### 천관농협회진지점, 이웃돕기 성금 전달

장흥군 회진면은 최근 천관농협회진지점 직원들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돕는 일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성금 100만 원을 회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기탁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성석 지점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우리 조합 또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주위에 더 힘든 이웃을 찾고, 도우며 상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재 회진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소중한 기부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같이 행복을 나누는 따뜻한 나눔 문화가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탁된 성금은 회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장흥=이옥현 기자